



&

책이 있는 자리

2020년 4·5·6월호

소통 Vol.241

&

책이 있는 자리
2020년 4·5·6월호
소 통 Vol.241

책이 있는 자리 소통호

2020년 4·5·6월호

Vol.241

미래엔 핵심가치 함께하는 신뢰 막힘없는 소통 번뜩이는 창의 가슴뛰는 도전
㈜미래엔 ㈜미래엔서해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미래엔에듀케어 ㈜오션스위즈
㈜엔베스터 ㈜현대문학 전북도시가스㈜ ㈜부흥산업개발 목정미래재단 목정문화재단

발행인 신광수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발행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기획 및 편집 M!실 치하연 T. 02) 3475-3980 디자인 BMCN ㈜보령C&I T. 02) 2272-4548

커버 일러스트 잔나 인쇄 (주)미래엔 / 이 책은 미래엔의 CTP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책이 있는 자리』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mirae-n.com

가격 : 500원



“우리에게 두 귀와 하나의 혀가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듣고 좀 더 적게 말하라는 뜻이다.”

- 디오게네스 -

“나는 의사소통을 진작시키는 모든 도구가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방식,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얻어내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는다.”

- 빌 게이츠 -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조화롭게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맑고 깨끗하도록 가다듬는 것에 정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 마하트마 간디 -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 탈무드 -



“군자는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귀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담아듣는다.”

- 공자 -

“우리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 헬렌 켈러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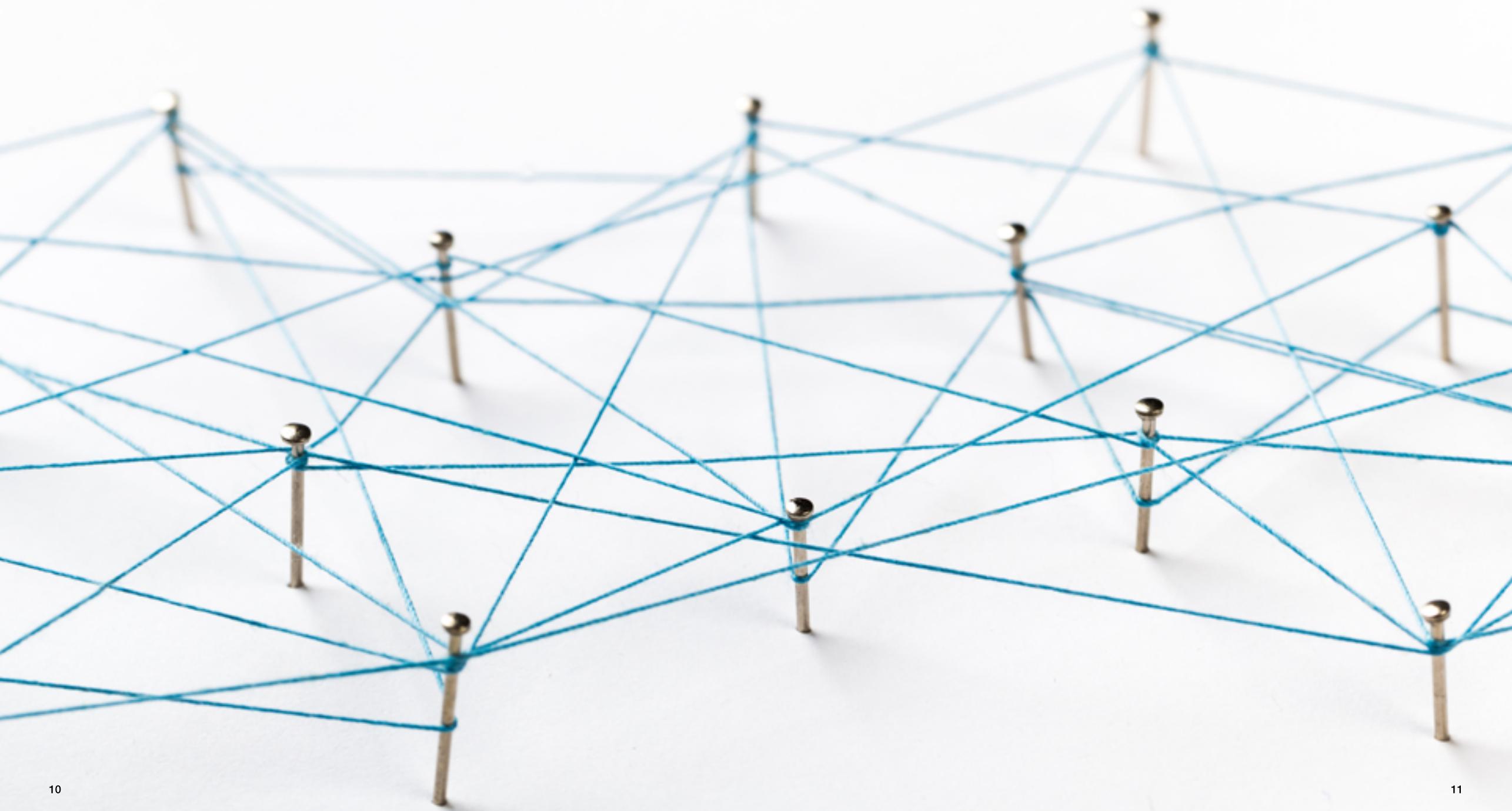
COVER STORY

알타이산맥에서 발원해 시베리아로 흘러 들어가는 이르티시강.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해 마지않던 이르티시강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중국에 걸쳐 오늘도 유유히 흐른다. 멈춰있
는 듯 보여도 어김없이 바다를 향하는 물줄기처럼, 소통은 막힘
없이 흘러야 한다.



- | | |
|--------------|--|
| 가 치 를
읽 다 | 12 기고문
소통자본으로 미래를 이어간다 |
| 현 장 을
읽 다 | 16 케이스 인터뷰
오픈서베이의 이유 있는 성장 |
| 세 상 을
읽 다 | 24 미래엔 톡톡데이(TalkTalk Day)
사내 소통(疏通)의 장(場)을 마련하다 |
| | 26 제 6회 미래교육상 찾아가는 시상식
교사의 역량이 주도하는 미래 교육을 엿보다 |
| | 34 인사이트IN
드라마「빨간 머리 앤」& 영화「작은 아씨들」 |
| | 38 수상한 책방
한옥을 리모델링한 북스테이 겸 책방 오월의 푸른하늘 |
| | 44 카드뉴스
2020년 상반기 교육 · 출판계 이슈 |
| 마 음 을
읽 다 | 50 원데이 클래스
핸드메이드 마스크 만들기 |
| | 54 시시풀풀
코로나19 이후 되찾고 싶은 소중한 일상 |
| | 56 SKILL UP
영원한 화두, 비즈니스 글쓰기 |
| | 58 에디터's 북큐레이션
「중국 플랫폼의 행동 방식」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
| | 64 신간 소개 |
| | 70 미래엔 뉴스 |
| | 74 빨간 우체통 |
| | 76 사우동정 |

가치를
읽다





소통자본으로 미래를 이어간다

글_ 김효상 컨설턴트·『소통자본을 구축하라』 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통자본의 중요성

지난호에서는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세계적 콘텐츠 기업 디즈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는 월트 디즈니의 신념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조직문화로 이어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 뒤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VCI 정렬 모델(Alignment model)’에 따르면 비전(Vision)과 문화(Culture), 이미지(Image) 간의 강한 일관성이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 파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기업문화에 반영하려면 내부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비전을 이미지에 맞추려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와 믿음을 쌓아 소통자본을 키워가야 합니다. 소통자본을 구축하는 첫걸음은 구체적인 미래상과 선명한 비전(Vision)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호만이 아닌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가치(Value)가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가치는 기업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상품과 서비스,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어 기업의 명성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자본은 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기업과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소통자본이 잘 구축된 기업의 직원들은 조직 몰입도가 높고, 회사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일치되어 창의적으로 일합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평생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기업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권위적인 문화를 넘어 소통에 성공하려면

원활한 소통은 개방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 협업을 강조하는 참여적 조직문화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권위적 조직문화는 의사결정의 집중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폐쇄성, 위계질서 등이 특징인데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상사들도 귀를 닫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 군대 경험, 세대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권위적 조직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부터는 소통채널의 형식과 방법을 다양화하며 좋은 조직문화를 갖추게 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함께 조직의 리더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칭 파괴와 협업 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선수들 간에 존칭 대신 이름만 부르게 했습니다.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전통적인 직급체계를 줄이고 ‘프로’, ‘매니저’ 등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한편, 사무공간의 근접성도 협업에 도움이 됩니다. 일찍이 MIT 대학의 토마스 앤런 교수는 소위 ‘앨런 커브(Allen Curve)’를 통해 물리적으로 멀면 대화가 줄고 R&D, 혁신, 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요즘 같은 모바일 혁명 시대에도 면대면 소통과 디지털 소통의 적절한 조화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협력을 원한다면 가깝게 모여 일하고 칸막이를 낮춰 조직 간 정서적 간격을 줄여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구글의 'TGIF(Thank God It's Friday)'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구글의 설립자 페이지와 브린은 매주 금요일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의 업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신제품을 시연하는 등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은 줄어들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메일(Gmail) 또한 기존의 이메일 용량이 부족하다는 직원의 불만으로 인해 탄생한 것입니다.

소통 방법은 반드시 면대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접적인 의견 표출이 어렵다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해 변화 추이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달 안에 공표되었으며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분석해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네 명 이상 부하직원이 있는 관리자들은 모두 해당 조직에 관한 설문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있는 팀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한편, 이직률도 낮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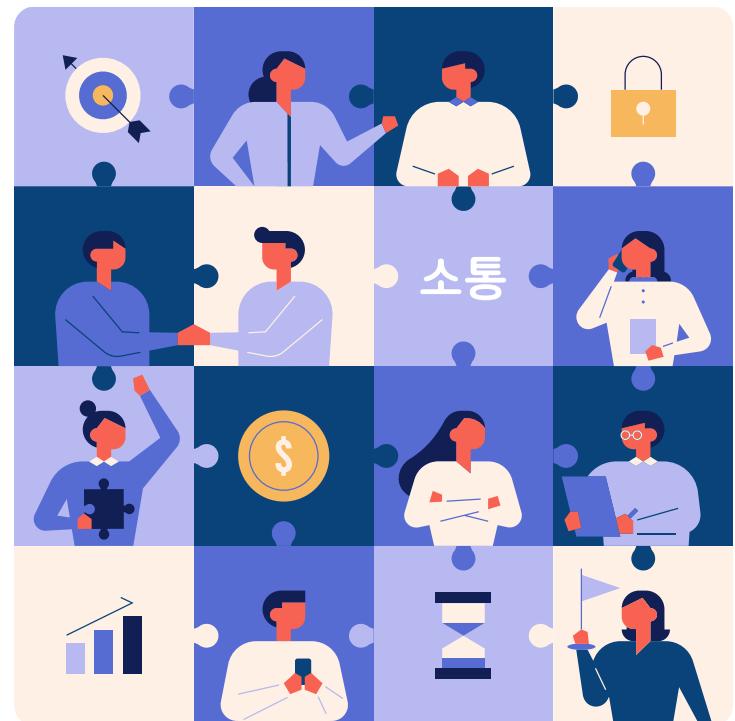
또한 '벽 없는 조직(Boundaryless Organization)'을 만들고 부서 간 협업을 중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회사 라인에는 '라인 오픈 데이'라는 사내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부서나 친해지고 싶은 부서를 초대해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된 부서는 다음 달에 다른 부서를 초대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매달 두 부서가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신규 사업, 제품 개발에 있어서 R&D, 제조, 마케팅 부문이 하나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각기 서로 다른 소속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협업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직원들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회사가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고 인식하게 된 예입니다.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꼽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업마다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참여적인 조직문화에서는 회사 내 각기 다른 영역 간의 협업은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아이패드에 앞서 태블릿PC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부서에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태블릿PC에 오피스를 연동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태블릿PC가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 교수는 부서 이기주의가 구성원 사이의 신뢰 하락과 정보 단절, 현실 안주를 가져와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기업에서야말로 '소통'의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래 희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일 만큼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 콘텐츠 기업은 '창의성'을 기르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 융·복합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업은 차별화와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은 유연한 사고와 활발한 소통입니다. 소통자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만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리서치 1위 기업 오픈서베이의 이유 있는 성장

| 케이스 인터뷰 

오늘날 기업의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리서치 방식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모바일 리서치 기업인 오픈서베이는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소비자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그 바탕에는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직원을 성장의 파트너로 삼은 ‘소통의 힘’이 있었습니다.

글_ 편집실

/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데이터와 사람이라는 인프라를 토대로

오픈서베이는 모바일 리서치계에서의 영향력만큼 독특한 기업문화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80년대생이 주축이 돼 창업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생, 2001년생까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오픈서베이의 기업문화는 소통의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의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에서 엿볼 수 있지요.

컨설턴트와 마케터로 커리어를 쌓았고 오픈서베이의 고객으로 오랜 동안 연을 맺어오다 입사한 황희영 대표는 직원들에게 ‘하이’로 불립니다. 서로를 닉네임으로 호칭하는 문화는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나아마 연차를 떠나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에서 권위나 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가치 창출을 위해 교통 인프라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에 오픈서베이가 소비자 데이터 기업으로서 일조할 것입니다. 사실 데이터는 전혀 희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그 데이터를 꽉 쥐고 있어서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산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픈서베이는 모바일 설문조사로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업입니다.”

18만 명 & 58명

모바일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수집해 이를 분석해 제공하니 기업으로서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과거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1천명의 응답을 모으는데 꼬박 몇 주가 걸렸다면, 오픈서베이는 3시간이면 모든 응답을 자동으로 시각화한 데이터 분석 페이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력을 기술로 극복한 만큼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오픈서베이를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서베이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 기본 프로필뿐만 아니라 소득, 자동차 소유 여부 또는 자녀(초등/중고등) 여부, 핸드폰 브랜드 등 세부적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죠. 만약, ‘학습만화 전집 구매자’ 같은 응답자의 경우, 주 타깃으로 볼 수 있는 30-40대 여성에게 사전 설문을 보내서 사진으로 학습만화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을 수집해 두었기 때문에 ‘응답 수집이 어렵다’는 허들을 뛰어넘고, 비용도 조사업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죠.”

18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패널이 오픈서베이(어플 ‘오베이’)를 지탱하는 핵심 죽이며 또 다른 죽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58명의 직원입니다. 황 대표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솔직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자율성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픈서베이의 구성원은 팀장이나 대표의 재가 없이도 2인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와 일대일 미팅(원온원)을 통해 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지요. 그간 자율출근제를 실시해왔지만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정시 출근도 도입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부서가 11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개발 부서의 경우 늦은 시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요. 하지만 출근시간이 고객사보다 늦으니 고객응대부서에서 더 이른 출근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하는 과도기를 거쳐, 고객서비스팀 중의 ‘아침형’ 2명만 정시출근하고 다른 직원들은 10시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 업무와 개인 특성에 맞게 변경한 결과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 피드백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오픈서베이의 직원들은 특정 이슈 혹은 성과를 위해 주어진 권리를 마다하는 것은 회사와 자신들 사이에 쌓인 믿음과 유대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2018년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보상으로 전 직원이 하와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 분들이 크게 만족하셨어요. 타 회사 개발부서나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정해진



기일에 맞추기 위해 ‘크런치 모드’로 돌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휴식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PR 매니저)

직급이나 포지션은 달라도, 서로에게 자극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구성원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변화가 빠른 IT 기반의 리서치 업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실현에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픈서베이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의견은 물론, 구성원의 의견을 열린 채널을 통해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그룹의 구성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prod_suggest'라는 공개 채널에서 제안하면, 개발그룹에서 이를 수용해 다음 제품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일대일 미팅부터 전사회의까지 다양한 소통채널

오픈서베이의 모든 구성원들은 1년에 2번은 대표와 마주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원온원'을 통해 직무와 개인사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팀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직제는 팀장과 팀원이 전부지만, 팀에 속하지 않은 전문성 트랙의 구성원은 별도의 구성원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해당 업무를 맡을 임시 조직인 TFT가 결성되곤 하는데, 오픈서베이는 팀과 무관하게 이니셔니브를 낸 구성원을 중심으로 다른 구성원이 수시로 뭉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팀 업무 이외에 서너 개씩 다른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정도라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일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이때 슬랙이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빠른 의사결정과 진행을 도와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FGD(Focus Group Discussion) 방식의 조사가 어려워졌는데, 내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화상 상품인 ‘오픈서베이 라이브’를 1~2주 만에 빠르게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대일 관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려면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원온원이 어려워지는 날도 올 텐데요. 구성원들과 슬랙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만큼 규모에 맞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리라

예측됩니다. 황 대표는 모든 팀과 개개인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팀별 채용 여부와 경영 계획을 유연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일합니다.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어가며 개인의 역량과 함께 회사도 성장시켜야 한다는 합의를 갖게 되었어요. 그간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범위가 넓을 때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업무에 있어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되 이를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열린 태도는 좋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진다

출판/교육업계는 리서치가 활성화된 분야는 아니지만 미래엔의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비자들이 미래엔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브랜드 인덱스 조사와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U&A(이용행태) 조사를 기본으로 표지 시안 콘셉트 평가, 아이들에게 직접 영상을 틀어준 뒤 반응을 확인하는 콘텐츠 시청 테스트, 앱 테스트,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카테고리에 대해 잠재적인 니즈가 있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성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 고민될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베이는 올해부터 국내 시장에서 검증받은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로 ‘오픈서베이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미 12개 언어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태도는 비단 구성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황희영 대표가 고객일 때 제안해서 만들어진 ‘다이어리 조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이어리 조사는 ‘일주일간 먹은 식사 메뉴 기록하기’와 같은 미션형 조사입니다. 당시에 의견을 반영해서 다이어리 조사를 런칭할 수 있었고, 현재도 이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메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외출감소와 재택근무 등 식생활의 변화를 파악해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급변할수록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태도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엔 TalkTalk Day



사내소통(疏通)의 장(場)을 마련하다

| 미래엔 톡톡데이(TalkTalk Day)

미래엔은 신광수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미래엔 톡톡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첫 시행 이후, 재택근무가 종료된 4월 23일에도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전사의 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글_ 편집실

/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새로운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

소통프로그램 ‘미래엔 톡톡데이’는 온라인 사전 설문을 통해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익명 질문이 가능해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 기간이 종료된 후 신광수 대표는 복지, 인사, 전략 등 직원들의 모든 질문에 본사 2층 드림홀 현장에서 답했습니다. 신 대표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면이 지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직원들 또한 이를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엔만의 소통 프로그램 ‘미래엔 톡톡데이’가 나날이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미래엔이 묻다!

Q1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된 재택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1 미래엔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통해 유연근무에 대한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진행 사례를 토대로 향후에는 시차출퇴근제 등 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Q2 보건휴가를 1달에 1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결재 양식에도 적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A2 보건휴가는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안을 따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 휴가 결재양식에 포함하여 개선하였습니다.

Q3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엔의 미래와 강점은 무엇인가요?

A3 외부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70년을 이어온 저력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사업 등 미래엔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역량이 주도하는 미래 교육을 엿보다

| 제 6회 미래교육상 찾아가는 시상식

미래엔의 교육재단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제 6회 미래교육상이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엔은 2015년부터 매해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교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미래교육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시상식이 부분적으로 열렸지만 교육 현장을 향한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찹니다.

글_ 편집실

대상의 영광은 인성교육 혁신분야로

미래교육상은 현직 및 예비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적 수업역량 개발을 독려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교육상입니다. 미래교육상은 ‘미래교육연구’, ‘인성 교육혁신’, ‘미래키움’ 총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학교, 학급의 인성교육 연계 활동 및 연구에 대한 ‘인성교육혁신’ 부문에서 올해 영예의 대상이 나왔는데요, 「교사-학생의 라포형성과 상호협상단계 매뉴얼을 통한 혁신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제안한 양주고등학교 정은석 교사가 수상했습니다. ‘미래교육연구’는 창의적인 수업 방식이나 교수법의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부문입니다.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수기를 공모하는 ‘미래키움’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학교에서 소소한 축하의 자리 마련돼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생들과 함께하진 못했지만, 찾아가는 시상식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월 26일 첫 시상식이 진행된 곳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송현주 선생님이 근무하는 인천구월서초등학교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10분의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가운데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이 참석해 상패와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개학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미래엔의 도서 500권과 푸드박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장아 본부장은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상의 시상자로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6회

미래교육상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응모작이 많았는데 수상하신 선생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7회, 8회 미래교육상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학생과의 관계 맺기부터 시작해야

대상을 수상한 정은석 선생님은 인성혁신 교육 부문에 「교사-학생의 라포형성과 상호 협상단계 매뉴얼을 통한 혁신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참고 할 만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제6회 미래교육상 찾아가는 시상식

주최 목청미래재단

주관 MiraeN



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성 교육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요, 정은석 교사는 이를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교직 생활을 만드는 일’이라 단언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에게 애정 어린 관심으로 다가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관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정면으로 대들기도 하지요. 정 교사도 처음부터 잘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실패와 좌절, 노력의 경험이 이번 공모에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 가슴 아픈 학생 2명, 가장 뿌듯했던 학생 1명을 꼽았습니다.

“교직 생활 초기에는 매일 지각을 하거나 제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싫

어하거나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2년 전 한 여학생의 변화를 보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매일같이 교사들과 충돌했고 무단 외출이 심한 학생이었는데 부모님과 면담 후에 여러 방면으로 지도를 시도했어요. 두 달쯤 지나자 저를 많이 의지하더군요. 학교를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퇴학을 선고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만 그 후 미용학원을 이수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연락이왔습니다.”

‘1%의 변화 가능성’이 있더라도 교사는 그것을 향해 가야한다’는 평소 신념에 확신을 가진 후, 정 교사의 인성 교육 매뉴얼은 더 구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근

현장을 읽다

제 6회 미래교육상 찾아가는 시상식

무하던 시절, 모든 교사에게 ‘꼴통’으로 낙인찍힌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칙을 지도하려고 해도 비아냥대던 그 친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라포와 협상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눈을 맞추고 미소 지으며 차근차근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협상에서 문제 학생이든 좋은 학생이든 감정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협상카드인 사탕이나 과자를 사용합니다. 잘못했는데 왜 사탕이나 과자를 주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단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학생은 다스리거나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협상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일 뿐,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교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서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학생을 비난하거나 처벌한 후에 후회하곤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수상의 일등공신인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2년 전 교직을 그만둔 아내지만 이번 공모를 위해 생각과 사

례들을 정리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의지가 돼주었습니다.

“즐겁게 학생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개학 후에는 제가 가진 틀에 아이들을 맞추기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설레면서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도 제 방법을 활용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혁신은 지역사회 및 학생들과 연계해야

한동규 선생님의 연구 과제인 「사회참여형 과학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삼선산수목원이라는 마을자원의 활용, 체험중심 교육, 프로젝트 수업 적절성, 연구 방법의 독창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교사가 근무했던 송산중학교(충남 당진시) 인근에 생태교육장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AR 생태지도



를 활용해 종의 다양성을 각인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실행했습니다. 한 교사는 AR생태지도라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척에 있어서 환경오염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수업시간에 동식물에 대해 수업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주변에 자생하는 동식물을 모르더군요. 자연환경이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을 눈으로 보고 발로 뛰며 공부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단순한 생태지도가 아닌 AR을 도입해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동아리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학생들의 연구 및 활동 결과물을 동아리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교내 및 지역의 초등학교, 당진시청소년축제와 충남과학창의축전 등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 정책으로까지 확장시켜 학생들의 성취감을 극대화 한 점입니다. 처음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부끄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의 제안이 시 정책에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정책이 생각만큼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교사가 구태여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체계적으로 나눔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행한 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기 위해 공모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쁩니다. 동아리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코로나19 여파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큰 자부심을 선물해 준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저 또한 진정한 깨달음과 배움의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뿌듯합니다.”

마음이 예쁜 아이들을 길러내는 비결

송현주 선생님의 「행복나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1년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며 삶의 힘을 키우는 공동체 문화 형성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관련 역량을 연계해 제시한 점,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진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 선생님은 학군이나 지역을 떠나, 한 학급 안에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임했습니다. 교직 초창기에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밭야구, 술래잡기, 달팽이놀이 등 아이들과 놀았던 시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즘 강조하는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직 10년차에 접어들며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동기를 기반으로 친구



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며 좋은 방법을 찾아 직접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 교사는 더 나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석사를 마치고 박사공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믿기에 배움을 통해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라는 믿음으로 ‘박사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을 잘 관찰해 겉기박사님, 청소박사님, 이해심박사님 등으로 부릅니다. 어느 날 여름프로젝트 활동 중에 마을을 걸어가는데 박사반 아이들이 보도블록 오른쪽으로 짹꽁 손을 잡고 걸어오더라고요. 복도처럼 우측통행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으니, 함께 살아가는 마을인데 인도 가운데로 다니면 사람들

이 불편하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자고 정해서 그렇게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찡했고 배움을 실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송 선생님은 누구 하나 소외되는 친구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 어눌하더라도 자신의 말로 배움을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을 꿈꿉니다. 동료 교사들에게는 평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업 보고서의 형식으로 교육활동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교사 또한 성장하며 의미 있는 교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상을 수상한 선생님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하루 빨리 학생들과 마주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요즘,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을
읽다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을 다시 만난다

| 드라마 「빨간 머리 앤」 & 영화 「작은 아씨들」

이상한 나라의 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작은 아씨들의 네 자매, 빨간 머리 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소녀의 성장이라는 서사를 다루어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며 사랑 받는 캐릭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월 개봉해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작은 아씨들」과 넷플릭스의 시즌제 드라마로 재탄생한 「빨간 머리 앤」을 다시 보노라니,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는 글입니다).

글_ 편집실

/
사진_ 소니픽처스코리아, 넷플릭스 제공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는 일

아마 작은 아씨들과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의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사람도 드물 듯합니다. 「작은 아씨들」이 가난한 네 자매의 성장 서사고 「빨간 머리 앤」이 고아 소녀의 가족 찾기가 주요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극장의 스크린과 넷플릭스에서 만난 이야기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희미하게만 알던 이야기가 친숙한 할리우드 스타의 외피를 입고 미처 몰랐던 개척기로 초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대의 문화와 복식,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매체의 특성이니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시간여행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시대극의 매력 중 하나지요.

작은 아씨들의 원작 소설이 출간된 것이 1868년, 그리고 빨간 머리 앤의 원작 「그린 게이블즈의 앤」은 1908년에 출간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가 전자의 배경인 반면, 후자는 이민자들의 나리인 캐나다 동부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보호자 없는 여인은 여행도 다닐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앤과 조는 결혼이나 사랑보다 학업과 꿈을 우선시하는 캐릭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똑똑히 알았으며 재능이 많았던 앤과 마지막 가의 둘째 딸 조가 당연한 명제의 경계를 넘으며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난과 불행이라는 역경을 넘어 성장하는 소녀들의 모습이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빨간 머리 앤: 마음에 불꽃을 품은 소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이야기가 새롭게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관객이 그만치 달라졌다 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여성 캐릭터가 분투하며 성장하는 두 작품의 경향 역시 이전 시대보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관객을 의식한 것입니다. 두 작품은 기존의 다른 리메이크작 혹은 원작에 비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중성이 가장 중요한 영화와 드라마는 관객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불쌍하지만 사랑스러운 고아로 빨간 머리 앤을 기억하던 시청자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불꽃을 품은 소녀”라는 문구는 앤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빨간 머리를 놀리는 소년 길버트의 머리를 석판으로 내리치고, 낯선 친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으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앤은 다혈질에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때론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





의 앞에서 늘 행동하며 입바른 소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품성도 가졌지요. 13살까지 위탁 가정 8곳을 떠돌며 학대와 착취를 당한 앤이라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예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간과했던 앤의 이런 모습을 넷플릭스 드라마는 공들여 그려냅니다. 일례로 앤이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와 만나는 소풍 장면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불품없는 소녀가 허드렛일을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딸로 입양된 것인가 하고요. 마침내 안착한 가족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애정을 누릴 줄 아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는 앤과 함께 웃고 울며 어느새 친구들과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흡뻑 빠져듭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게 된 앤은 자신 또한 편견 없는 사람이 되어 당시로서는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던 성소수자와 인디언 원주민,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프리카계 이민자, 그리고 파혼 후 여자로서의 명예를 잃은 친구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줍니다. 사회가 그어놓은 선의 바깥을 두려움 없이 드나들며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인데, 붉은 머리에 창백하고 주근깨 가득한 피부와 연민을 일으키는 앗된 외모로 앤을 연기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에이미 베스 맥널티가 이를 배가시킵니다.

작은아씨들: 가난 속에서 꽂피운 작가의 꿈

딸 부잣집 마치 가의 둘째 조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작가의 꿈을 잊지 않는 씩씩한 소녀입니다. 연기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교사와의 사랑을 택한 언니를 보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한 부잣집 도련



님 로리와는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사이이며 네 자매 중 막내인 에이미가 로리를 짹사랑하지요. 셋째 베스가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자 조는 뉴욕에서의 생활과 작가의 꿈을 접고 귀향해 베스를 간병합니다. 하지만 베스는 세상을 떠나고 조는 로리에 대한 마음을 뒤늦게 고백하려 하지만 이미 로리와 에이미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팔리는 글이 아니라 진짜 쓰고 싶은 글을 쓰라며 흑평을 아끼지 않던 조의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부유한 이와의 결혼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조는 원고료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은 자유롭지만 삶의 여정을 함께 할 동반자가 없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조의 사랑이 어릴 때부터 막역한 친구였던 로리와의 결혼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작가라는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관습을 바꾼 용감한 캐릭터

선언 같은 조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고 자신의 재능을 꽂아 피울 줄 아는 인물입니다. 이 말괄량이 캐릭터는 여성 감독의 연출과 시얼샤 로너의 보다 주체적인 연기로 일곱 번째로 스크린에 되살아났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 고민하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지요. 그리고 정확히 반세기 후의 인물인 앤이 고아라는 어려움을 딛고 이민자와 사회적 약자 가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를 일구며 대학이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첫 발을 딛습니다. 타고난 조건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더 넓은 가족을 갖게 된 앤과 조는 굉장히 닮은꼴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가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서사로 폭넓은 공감을 끌어냈을 때야 비로소 명작,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작은아씨들」과 「빨간 머리 앤」은 소녀들의 희망이자 교과서입니다.



한 옥 을 리 모 델 링 한 북 스 테 이 겸 책 방

| 오월의 푸른하늘

독립서점 열풍에 이어 게스트하우스와 책방을 결합한 형태인 북스테이가 인기입니다. 책과 함께 호젓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 가족 단위 혹은 친구와 함께 번잡한 도심을 떠나 쉬고 싶을 때 북스테이를 추천합니다. 옛 한옥을 새롭게 단장한 오월의 푸른하늘은 주인이 읽은 책들을 큐레이션한 책방으로 독서모임 등의 대관도 가능하며 앞마당에서 시골마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북스테이 공간입니다. 한옥을 가정식 서점으로 꾸민 정감 가득한 공간에서 주인장이 선별해 고른 문학 분야의 책과 그림책, 중고도서를 만날 수 있으며 5천원의 이용료는 책을 구입하면 돌려줍니다.

글_ 편집실

/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독립서점에 이어 북스테이 열풍

책장에 첫 장이나 소개글만 읽은 책이 빼곡한 사람이 많습니다. 책 보는 일을 즐기고 꽤 많은 책을 읽었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책 대신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지요. 집을 나서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에야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면, 이는 공간이 독서에 미치는 힘을 보여줍니다. 집을 놔두고 굳이 북스테이를 찾는 책 애호가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독서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증명하고요.

자신만의 여행을 가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 중 하나가 독립책방 혹은 북스테이입니다. 두 곳을 겸하는 곳도 많습니다. 맘에 썹 드는 책을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은 일상에서는 찾기 힘든 기쁨입니다. 고즈넉한 시골책방에서 책과 더불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오월의 푸른하늘을 추천합니다.



한때 수도권의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은 이제 각종 물류센터가 즐비한 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은 책방지기 레오(최린) 씨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한옥으로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3월에 책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옛집을 허물지 않고 더 많은 노동력을 쓴아부어 서재 같기도 하고 응접실 같기도 한 정감 가는 공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역을 위한 문화공간을 꾸리다

오월의 푸른하늘을 지키는 레오 씨는 아직 20대의 청년입니다. 본격적으로 독서를 즐기기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넘었습니다. 외로운 유학 시절 벗이 되어준 책 덕분에 나날이 독서를 즐기게

되었고, 지역에 문화독서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고민하다 어엿한 책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천시에는 두 곳의 ‘문고’가 있을 뿐,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돌 아와 살고 싶은 곳에 책방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찾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에는 ‘북카페’로 많이 소개하시던데 음료를 판매하지 않으니 카페가 아니라 책방입니다. 이용료를 내면, 책을 무한정 읽으실 수 있고 커피도 내려드려요.”

레오 씨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지역학을 공부했습니다. 직장도 잠깐 다녔지만 조직생활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책방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역의 균형적인 문화 발전이란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니다.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도 드물고, 도서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토록 칭찬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단지 ‘서울’이었다는 것을, 이천의 현실을 보며 그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뛰어놀던 컴퓨터가 원룸촌으로 바뀌고 그 옆으로 트럭이 쟁쟁 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선택했고 꾸준히 잘 꾸려간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본

만 해도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책방이 있거든요. 폐가로 남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설득했더니 가족들도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레오 씨의 아버지가 건축회사에서 근무했고 어머니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출신이기에 큰 비용 없이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한옥을 리모델링해 책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노동력으로 인건비를 대신하고, 재봉틀 등 집기를 재활용해 테이블을 만들어 재료비조차 거의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영자이자 책방지기로서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것은 각자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집중할 수 있는 도서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독립된 마

당을 조성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를 배제하고 아이들도 책방 내부에서는 조용히 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읽은 책만 서가에 비치해 판매

책방의 이용료 5천원을 내고, 원하는 만큼 책을 읽거나 필사하거나 심지어 촬영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 이곳의 매력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시간까지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래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비치된 모든 책은 책방지기가 미리 주문해 읽고 책방에 어울리는 책만 선별해 비치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시간 20권과 중고서적들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책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엄청 읽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목으로 현혹하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 내용을 보고 사시라고 비밀을 제거하고 비치해둡니다. 책 한 권 사는 것이 어려운 가정도 많으니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면 서로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훼손율은 낮은 편이에요. 열람용과 판매용이 따로 없어서 읽은 흔적이 있는 책이 더 좋은 책일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책방의 수익 구조는 책값과 이용료, 그리고 북스테이 비용입니다. 숙박료도 기존의 북스테이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1~2인 6만원, 3~4인 12만원) 합니다. 북스테이의 특전이라면, 책방이 자신만의 서고로 변신한다는 점. 밤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연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인당 5천원을 내면 조식도 제공합니다. 구옥이라서 난방이 완벽하지 않고 침낭이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형 숙소라서 저렴하게 책 여행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나 청년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책과 함께 만끽하는 시골 밤의 정취

책을 친숙히 여기고 책방을 운영하게 된 것은 레오 씨의 부모님이 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고, 때로는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얼마 전 스테이로 다녀간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침에 책방에 나오니 식구들이 자는데 아이만 혼자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인들이 보는 「조선왕조실록」이 재밌다고 얘기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책방에 또래 남자 아이들이 볼 만한 그림책이 많이 없다면서 추천도서를 꼽아줬습니다.”

책방을 찾는 이가 차츰 늘면서 기고나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독서모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레오 씨는 회원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큰 나비효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실히 책을 읽고 커피를 내립니다.



오월의 푸른하늘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77번길 16

운영시간 수~일 13:00~19:00

연락처 031-634-9659

블로그 blog.naver.com/kazuyan17



2020년 상반기 교육·출판계 이슈

01

각본집의 베스트셀러 등극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각본집이 출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인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10월 출간된 「기생충」 각본집이 큰 반향을 얻지 못하다가 아카데미상 4관왕 수상 이후 판매량이 급증해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일찍이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열광적 팬덤이 있었으며 독립영화의 힘을 보여준 영화 「벌새」 각본집도 꾸준한 판매고를 자랑합니다. 각본집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고, 다각적으로 소비하려는 팬들이 구매합니다. 대중 관객보다는 팬덤이 좌우하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들도 속속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김은희 작가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각본집과 드라마 「스토브리그」 대본집 등 다양한 대본이 출판계의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교육·출판계 이슈

02

화제의 중심 북커버 챌린지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중인 사람들 사이에 인증 문화가 유행하면서 책 표지를 인증하는 북 커버 챌린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7days7cover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7일 동안 매일 한 권씩 좋아하는 책의 표지 사진을 올리고 '친구(이용자)'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설명도, 독후감도 없이 표지 이미지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지한 서평을 남기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올 초에 시작된 챌린지는 큰 화제를 끌지 못하다 최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 서로에게 독서를 권하는 형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지인의 독서 취향과 생각을 엿보고, 책장에 자리한 책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독서 문화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교육·출판계 이슈

03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언택트(Untact) 교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이 한 달 이상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3월 중 두 차례 연기된 것에 이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 학교는 개학을 늦춘 후 최우선적으로 비대면 교육 시스템과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클래스를 통해 원격으로 학습하며 교과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고3·중3을 시작으로 다른 학년들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된 12월 3일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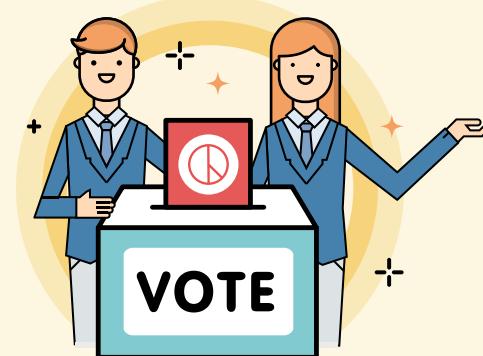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교육·출판계 이슈

04

투표권을 갖게 된 십대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제 21대 총선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교 3학년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투표장을 찾은 십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미래 민주시민의 탄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치 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의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개학 연기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마
을
일
다



바이러스도 미세먼지도 잡아주는 만능템 핸드메이드 마스크 만들기

| 원데이 클래스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마스크 쓰기를 강조한 덕분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금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아이템, **핸드메이드 마스크 강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다섯 분의 미래엔인이 참여해 각자 집에서 만든 마스크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가사와 업무를 병행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완성된 마스크를 잘 활용하며 뿌듯함을 느끼신다니 다행입니다.

글_ 편집실

/ 사진_ 뉴토피아 프로덕션



손맛을 더한 수제 마스크 클래스

마스크 5부제의 시행 이후 실외와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 마스크는 좀 불안하고, 최첨단 방역 마스크는 숨 쉬기가 어려워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리는 불편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핸드메이드 공방에서는 수제 마스크 강의가 인기입니다. 면마스크이기 때문에 빨아서 다시 쓸 수 있고, 내부에는 필터를 넣어서 쓰고 교체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검은 마스크와 흰 마스크, 블루와 회색 정도 뿐이던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집에서 쓰고 남은 면이나 린넨 원단으로 만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유아용 거즈 손수건 등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도 가능하지요.

이번 원데이 클래스는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발맞추어 DIY 방식으로 각자 진행했습니다. 와이마우스페션공방의 나은미 강사와 함께 시연제품을 만들며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미싱 기준으로 되어있던 수업 교안을 손바느질용으로 수정해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교안만 보고 마스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소 바느질이나 재봉, 흠패션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훔질’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검색 대잔치’를 벌여야 하니까요. 모니터를 오래 보다 보니 슬슬 바늘구멍도 잘 보이지 않고, 두 겹으로 퀘매거나 빨리 끝내려는 욕심에 실이 조금만 길어지면 엉키기 일

쑤입니다. ‘한 땀 한 땀 차근차근’이 바느질의 묘미이지만 흡사 도를 닦듯 정진해야 결과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보고 만드신 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다섯 분의 참여자 중 세 분이 초등과학팀 소속이었는데요, 사실 바느질의 재미는 손은 바삐 움직이면서 수다 삼매경에 빠지는 것입니다만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 양꼬 없는 찐빵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 함께 만드는 재미는 빠졌지만 서로 물거나 도와가며 한다면 온라인 수다는 가능합니다.

마스크 만들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필터 교체형이 아니라면, 앞면과 뒷면을 재단해 바느질한 뒤 끈만 달아주면 되지만 교안은 고급형으로 필터 교체용 트임이 있고 입체적인 패턴을 위해 앞면과 뒷면 모두 2개의 천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접을 따라 양쪽 5미리의 바느질 선을 그어준 후 곡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뒷면과 안감을 덧대어 4면을 모두 바느질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미싱이 있다면 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형태를 완성한 후 와이어 자리를 잡아주고 와이어와 필터, 끈을 결합하면 마스크 제작 완성! 잘 사용하다가 마스크 본체는 주물주물 손빨래하고, 필터(온라인에서 구매 가능)를 교체해 쓰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수품, 마스크 비용을 아끼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마스크 제작에 동참하는 일, 해보면 보람과 재미가 꽤 큽니다.

핸드메이드 마스크 만들기

(필터 교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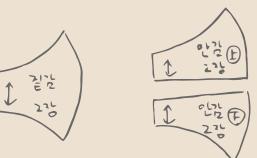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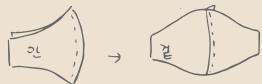
준비물

교안대로 그린 뒤 2장씩 재단
고무줄 26cm 2개, 와이어 8~9cm 1개



1

겉감 볼록 곡선부분을 (겉+겉면을
마주 대고) 0.5cm 간격대로 훔질하
고, 시접을 접어 오른쪽으로 꺾은 뒤,
0.1cm 간격으로 중앙선을 훔질한다.



2

안감의 위, 아래 볼록 곡선부분을
(겉+겉면을 마주 대고) 0.5cm 간격으
로 훔질하고, 시접을 접어 오른쪽으로 꺾은 뒤,
0.1cm 간격으로 중앙선을 훔질한다.



3

안감 여밈단 부분을 안으로 0.5cm씩
두 번 접어, 0.1cm간격으로 훔질한다.



4

겉감과 안감(겉+겉면을 마주 대고)
사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0.5cm
간격으로 훔질한다.



5

뒤집은 다음, 안감을 보고 위,
아래 0.1cm 간격으로 훔질한다.



6

안감을 위로 두고, 와이어 통로를
0.5cm 간격대로, 9~10cm너비로
훔질한다.



7

양옆 2cm 안감 쪽으로 접은 뒤
0.1cm 간격으로 훔질한다.



8

고무줄 옷핀에 걸어 양옆에
끼우고 매듭을 묶어준다.



9

필터 중심부분 위, 아래를 3cm씩
자른 뒤 마스크 속에 넣는다.



정보_와이마우스패션공방 | 영상_흑백작업실

[잠깐, 강사의 TIP!]

마스크 안감과 겉감을 꿰맨 후 뒤집을 때 모서리
가 뾰족하게 되도록 바늘귀를 사용해 꺼내 주세
요. 스팀다리미로 형태를 잡아 한 번 다려주면, 모
양이 잘 잡힌답니다. 완성된 마스크를 얼굴에 써
보고 와이어의 길이나 패턴 등을 수정해서 맞춤형
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나씩 만들어 선
물하다 보면 바느질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인터뷰

초등사회팀 조혜민 과장

설레는 마음으로 마스크 만들기 키트를 받아든 것도 잠
시, 설명서의 훔질이 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
니다. 도무지 교안의 내용이 이해되질 않아 검색창과 유
튜브 영상을 몇 번이나 보고 난 후에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도 엉키고 바늘에도 찔리
고 고생했지만 순서를 이해하고 바느질에 집중하는 순간
부터는 잡념도 잊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걸
려 어렵게 완성한 마스크지만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
어 마스크 만들기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길 간
절히 바랍니다.

초등과학팀 김은영 과장

집에 감금되다시피 회사 업무와 육아만 하다가, (소질은
없지만) 새로운 장르의 것을 해보게 되어 재미있었습
니다. 무엇보다 요즘 가장 필요한 아이템, 마스크를 직접 만들
어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과학팀 권태정 대리

단추 달 때 말고는 바느질을 해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삐뚤빼뚤하고 제멋대로지만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처음
에는 제대로 따라 하는지도 헷갈렸지만 하다 보니까 어
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접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사이즈가 살짝 작네요… 만약 다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도 원격 원데이 클래스 덕분에
주말을 재밌게 보냈습니다.

초등과학팀 유미나 과장

시의적절한 클래스 소식에 주저 않고 신청하여 오랜만에
바느질에 매진하였네요. 잘 만들어진 마스크를 보니 더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정성으로 나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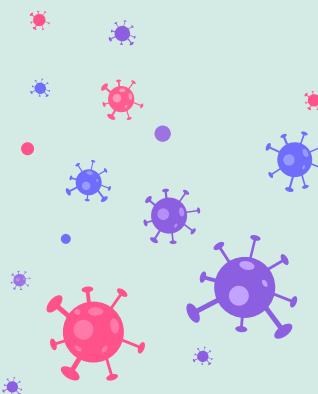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되찾고 싶은 소중한 일상

| 시시풀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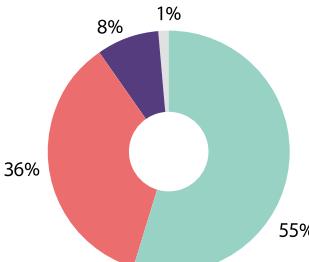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꽃놀이도 봄 소풍도 없었지만, 미래엔인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SNS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따라하며 '집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 하고 싶은 일들을 꼽으며 잘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글_ 편집실

※ 전체 참여자수 : 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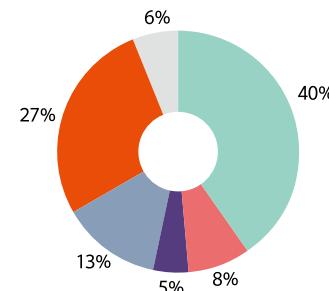


1_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주택근무로 인한 비대면 근무환경(46명)
● 코로나19(31명)
● 마스크 착용과 집밥 등의 외식환경(30명)
● 오프라인의 제한 등 취미생활의 변화(7명)

2_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나요?



● 영화와 드라마 보기(34명)
● 집콕(23명)
● 독서(7명)
● 在家(8명)
● 홈트레이닝(4명)

약 절반(55%)이 '주택근무로 인한 비대면 근무환경'을 꼽았습니다. 미래엔이 선도적인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찍이 실천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36%) '마스크 착용과 집밥 등의 외식환경'입니다. 외부활동과 운동량이 줄고 스트레스는 먹방으로 달래니 살이 찌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텔레비전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늘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보기'(40%) 외에 '독서'(8%)와 '홈트레이닝'(5%), '먹기'(13%) 등을 꼽아주셨지만 의외로 '딱히 없다'(27%)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집에서 보내는 일이 체질에 맞는 분들이겠지요. 그 외에 스페인어 공부와 우쿨렐레 연습 등 소소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미래엔인의 생각

집에서 매일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할 줄 아는 음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던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늘어난 요리 실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 사회팀 김온누리 과장



올해 버킷리스트 중 2가지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그동안 겁이 많아서 못해본 렌트카 여행과 패러글라이딩을 꼭 하려 가고 싶네요!

- 경영기획팀 배윤희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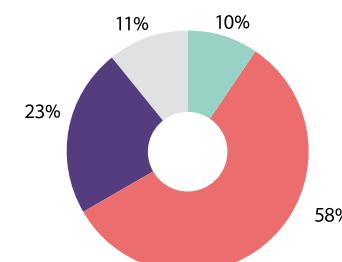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미뤄진 개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립시다!

- P&D사업팀 김용민 부장

해외 주재원으로 있는 가족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팀 권태정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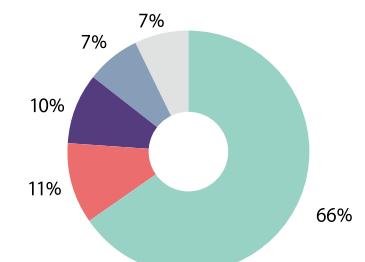
3_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업 해두었다.(8명)
●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꼽아본 적이 있다.(48명)
●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19명)

절반이 조금 넘는 미래엔인은 '코로나19 이후 하고 싶은 일들을 꼽아본 적이 있다'(58%)고 합니다. 여덟 분(10%)은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업 해두었고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23%) 분들도 있다지만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4_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여행(55명)
● 운동(9명)
● 오프라인 쇼핑(6명)
● 기타(6명)
● 외식(8명)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만큼, 약 66%의 비율로 여행을 꼽아주셨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마스크 없이 활보하고 싶다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나들이와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듯합니다. 차순위로 '외식'(10%)과 '운동'(11%), '쇼핑'(7%) 등이 있으며 만나지 못한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화두, 비즈니스 글쓰기

| SKILL UP

이번 호는 업무 소통에 꼭 필요한 글쓰기와 문서 작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기획서와 제안서를 쓸 때는 물론, 메일링부터 온라인 회의까지 글쓰기는 업무역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편집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에서도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다양한 아티클을 읽으며 영감을 찾는 일 이 필요합니다. 미래엔인의 역량강화 방법을 리서치와 인터뷰로 알아보았습니다.

글_ 편집실



“편집자의 노고를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자 봉지에도 좁은 지면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핫한 문구와 신선한 브랜드명, 유행하는 일러스트, 뒷면의 먹는 방법 소개와 칼로리 등의 정보가 담긴 과자 한 봉을 비우고 나면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미지 출처 : 민음사

01 잡지, 과자봉지에서 아이디어 찾기

국어팀 이충선 차장

이 차장에게 혁신적인 디자인과 컨텐츠가 담긴 잡지는 생각을 활기하고,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었던 틀을 깨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매 호마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다루는 「컨셉진」이나 「매거진 B」에서 책의 콘셉트를 참고하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잡지들도 즐겨 읽습니다. 합정역 인근의 「종이잡지를럽」 서점을 찾아 한 도시의 혼자라이프를 담은 「베뉴(VENUE)」,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표방한 「쓸(SSSSL)」 국내 잡지와 다양한 외국 잡지를 접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새로운 형태의 참고서를 담당하면서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데에는 다시 독자가 되어본 경험이 유효했습니다.

“최근 「릿터」라는 문학잡지에서 단편 소설을 실었는데, 흔히 말하는 「양쪽정렬」이 아니라 「왼쪽정렬」이었어요. 대부분 「양쪽정렬」과 「가운데정렬」을 주로 사용하는데, 「릿터」는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을 넘겨야 하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텍스트를 넘겨 버리더군요. 「내용 전달」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을 최대한 삭제하면 「혁신」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다음 책에서 시도하고 싶습니다.”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경우 대개 영어 메일을 쓰는데 비즈니스 영어 스킬이 부족하던 시절, 선배가 가르쳐준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사에서 오는 메일 내용 중 처음 듣거나 괜찮은 비즈니스 영어 표현들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영어로 메일을 보낼 때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소위 ‘콩글리시’를 줄여주고 원활한 소통과 계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02 메일링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출판기획팀 김마이 과장

이메일을 통한 소통과 데이터 관리는 온라인 시대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특히, 출판기획팀 김마이 과장이 담당하는 해외도서 기획 및 저작권 업무는 해외 저작권사와 국내외 에이전시, 출판사까지 동시에 소통하기 때문에 한 도서의 히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웃룩은 그룹웨어 메일주소와 연동이 가능해 여러 메일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도서별로 파악하기에 유용한 툴입니다. 아웃룩에서는 첨부파일만 별도로 컴퓨터에 저장한 후 메일 내용 자체는 보관할 수 있어서 용량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팁은 메일을 색깔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각 메일에 급하거나 중요한 정도, 어떤 업무인지를 각각 다른 색깔로 분류해두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고, 어떤 일의 양이 많은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메일을 많이 사용하거나 기록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께 아웃룩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읽는 일은 원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가들의 플랫폼인 브런치에 실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매거진을 눈여겨봅니다. 소소한 트렌드가 보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글을 쓸 때도 텍스트의 크기나 그림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편집하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자극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감성을 키울 수 있고 자주 무너지는 「쿠크다스 멘탈」과 힐링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미지 출처 : brunch.co.kr <하늘에>by우영

03 디자이너가 컨텐츠력을 키우는 법

에듀디자인팀 유성아 과장

빠듯한 시간이 문제였다면,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등디자인팀 유성아 과장은 아이 둘의 육아 때문에 따로 자기계발을 하지 못하지만, 틈틈이 보는 브런치 글과 디자이너가 든든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육아 이야기를 읽으려 들어간 ‘브런치’에서 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추천 작가와 매거진에는 이유미 작가의 「손바닥 소설」 매거진, 우영 작가의 「일러스트 일기」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부터 디자이너를 열심히 써왔는데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알록달록 칠해 예쁘게 꾸미면서 한 권의 작은 편집 디자인을 완성하곤 했습니다. 짧은 분량일지라도 다양한 견해와 일상의 관점이 녹아 있는 글을 읽고 쓰다 보면, 가슴 깊이 남는 문구와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는 편집자의 의도와 디자이너의 감각이 잘 녹아나야 하는 작업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소소한 취미 생활이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

| 「중국 플랫폼의 행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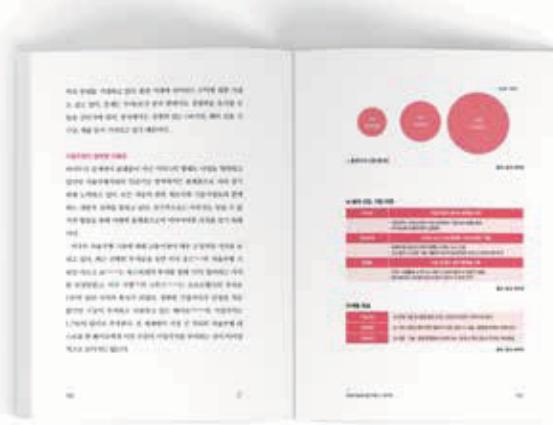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양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미국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글로벌 마켓을 주름잡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을 매섭게 추격하는 중국 플랫폼을 망라하는 책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와 디디추싱이 생소하다면, 우리는 아직 중국의 잠재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주름잡은 싸이월드의 책임자였으며 ‘중국통’이기도 한 저자는 바로 지금 중국 플랫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합니다. 와이즈베리 편집부가 지난해부터 원고와 씨름하며 써내려간 중국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단행본 개발팀 한지원 대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리_ 편집실

중국 플랫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의 90%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지금껏 미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만 공부하며 따라잡으려 해왔지만, 플랫폼의 종주국인 미국은 오히려 뛄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가장 경제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십억 개에 달하는 주문을 처리하는 타오바오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 여럿이 최근 들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주목도는 계속 높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현시점에서 유튜브를 뛰어넘을 유일한 경쟁자로 틱톡이 지목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로 세계 1위인 기업은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제 1의 플랫폼 전문가로 꼽히는 이승훈 교수가 플랫폼 전반을 다룬 전작 베스트셀러에 이어, 이를 기반으로 중국 플랫폼만 조명하는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중국 플랫폼의 성장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혁신은 중국에 있다

이런 시기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는 중국 플랫폼을 다루는 것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현재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은근히 중국을 알아보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책에서는 미국의 플랫폼 역시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플랫폼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양상으로, 2010년 중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던 구글이 '드래곤 블레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정부와의 분쟁을 피하고 재진입할 방법을 어떻게 모색했는지, 양국의 대립에 따른 모바일 OS 구조의 변화가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여다본 중국 플랫폼

'중국 플랫폼의 행동 방식'은 직관적인 제목처럼 플랫폼이 생활에 미치는 실례를 함께 들어 설명하고 있어 흥미 또한 갖췄습니다.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책은 시중에 없었습니다. 곁핥기식으로 중국의 플랫폼 전반을 짚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비즈니스 트렌드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기반 지식에 따라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미국 플랫폼과의 차이를 한눈에 조망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돋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출간 이후 창업을 꿈꾸는 독자가 "꿈을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흔 한 매 안 흔 한 일 기

사고뭉치 남매와 함께 일기의 세계로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10억 뷰와 18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책은 4권까지 출간되며 메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이세움의 읽기물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역시 출간되자마자 독자층을 사로잡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 초대박 콘텐츠를 냈다고 해서 후속작이 무조건 좋은 평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존 구독자들은 물론 신규 독자에게도 재미를 선사하려면, 제작진과 편집진의 고된 노동과 고민의 시간이 뒤따라야 하지요. 챕터별로 원고가 들어올 때마다 피드백 회의와 수정을 거듭한 결과, 언어유희와 허무 개그, 슬랩스틱 등의 코미디 요소와 콘텐츠를 절묘하게 결합한 또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콘텐츠개발팀 서정희 과장, 백한별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리_ 편집실

「흔한남매」와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

만화 시리즈 「흔한남매」가 전례 없는 초대박 히트를 쳤기에 이를 활용한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출간된 만화와의 차별화였습니다. 「흔한남매」가 어린이 독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아이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었죠. 만화의 또 다른 버전으로 보이지 않아야 만화를 읽은 독자도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고심 끝에 교육적인 콘텐츠를 더했고 「일기」라는 콘셉트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도무지 일기 쓸 엄두가 나지 않던 아이들도 좌충우돌하는 에이미의 일기를 보며 「나도 한번 써 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도가 적중한 셈이지요. 편집진은 일기를 써 볼 수 있는 팁과 연습 섹션을 제공하여 스스로 일기를 쓰도록 독려함으로써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노력

「흔한남매」가 어린이들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재미’를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읽기물은 만화보다 호흡이 길어서 스토리가 늘어지면 몇 장 넘기다 책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유튜브 영상을 살살이 검토하며 웃음 포인트가 많은 영상을 선별하는 한편, 그 내용을 베이스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창작했습니다. 처음 책을 펼친 독자들은 ‘어? 이거 유튜브에 있던 건데?’ 싶지만 읽다면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행동에 놀랄 때마다 미로 찾기와 숨은 그림 찾기, 심리 테스트 등의 활동도 적절히 배치해 아이들이 흥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남다른 팀워크가 만든 결과물

이렇게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편집자도 시놉시스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직무능력 또한 훌쩍 높아졌습니다. 원고가 들어올 때마다 편집진들은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모여 피드백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연말~연초의 과도기에서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지만 서로의 결과물에 가감 없이 혹독한 비판도 하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팀워크를 다지며 펴낸 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일석삼조’라는 아주 흔한 표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한장 중국어
4권, 5권**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 중국어 교재이다.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색깔로 성조를 구별하여 따라 읽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된다. 新HSK 1, 2급 어휘로 단어와 문장을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중국어의 기초를 세워 준다. 다양한 활동과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로 학습의 흥미를 끌어올리도록 구성했다. 하루 한 장씩 8주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습의 부담을 덜고 효과는 높인 교재이다.

**올리드 시험직보 문제집
중등 국어, 영어 3-1, 3-2**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시험 직전에 바로 보는 내신 대비 문제집이다. 미래엔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출제 가능성が高い 영역별 문제와 단계별 서술형 문제를 통해 중간·기말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시험 직전에 교과서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고 싶을 때 유용한 교재이다.

**올리드
중등 과학 3-2**

저자_ 미래엔콘텐츠연구회

4종 과학 교과서의 핵심 개념, 중요 탐구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세분화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였다. 개념과 탐구에서 학습한 내용을 빤히 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유형별 문제를 수록했으며, 개념학습편과 시험대비편을 동일한 강별, 대단원별로 구성해 반복 학습과 복습에 효과적이다. 문제의 친절한 풀이와 적용 개념 등을 제시하여 자료별 유형을 탄탄하게 학습할 수 있다.

**DK 똑똑한 어린이를 위한
세계 백과**

저자_ 미래엔 아이세움 편집부

자신과 가족, 자신을 둘러싼 작은 사회, 나아가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세계 백과이다. ‘나는 누구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다른 세상을 알아간다.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산과 강, 주요 도시 같은 지리 정보는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유적과 유물이 있는지 과거부터 촉작된 나라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웃는 고양이의 5분 괴담 2
불꽃 축제행 괴담 열차**

저자_ 나스다 준 | 그림_ 오카마 | 번역_ 전예원

타쿠로는 불꽃 축제 구경을 가기 위해 친구 유카와와 함께 임시 열차에 올라탄다. 그러나 열차에서 두 친구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나타난 웃는 고양이. 한 편에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괴담 18편과 44장의 그림이 선사하는 오싹하고 재미있는 괴담들을 만날 수 있다.

미래엔에듀

미래엔아이세움



고민 해결 1 문제없어! 학교생활

저자_ 가지쓰카 미호 |
그림_ 쓰보이 히로키

요즘 아이들의 리얼 고민 해결책. 새 학기를 맞은 초등학교 5학년 소심이와 쌍둥이 오빠 무심이가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안 친한 친구, 심지어는 싫어하는 친구와 한 반이 되었다. 학교에 가기 싫은 어느 날 밤, 아이들의 한숨 속에서 태어난 망설이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과연 소심이와 무심이는 고민을 해결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래엔아이세움



로마에서 보물찾기

저자_ 포도알친구 |
그림_ 강경효

세계 여러 유명 도시를 누비는 「보물찾기」 시리즈. 이번에는 로마로 떠나, 무시무시한 악당들에게서 소중한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보물찾기 짱이라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특별한 분장까지 하고 로마의 검투사 학교로 숨어든 토리와 그곳에서 만난 세 명의 친구들이 수상한 교관의 음모를 밝히고 보물을 지키는 스토리이다.



총몇명 스토리1

원저_총몇명 | 저자_윤종문 |
감수_ 샌드박스 네트워크

원작 유튜브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화책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한 코믹북으로 원작의 통통 튀는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 위에 만화책만의 읽는 재미를 더했다. 1권에서는 수능 전날 꿈에 나타난 악마와의 계약, 크리스마스를 악몽으로 만든 공포의 데이트, 한밤중에 일어난 납치 사건 등 주인공 민모리와 가족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담았다.



흔한남매 4

원저_흔한남매 | 저자_ 백난도 |
그림_ 유난희 | 감수_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의 웃음 폭탄 스토리를 양증맞고 유머러스한 만화로 풀어낸 네 번째 코믹북이다. 두 근두근 새 학기를 맞이한 남매, 에이미의 연애 코치, 유틸이의 기막힌 동생 사용 설명서, 달콤 살벌한 벨런타인 데이, 만약 학교 공부가 슬라임이라면 벌어질 일들, 남매의 리코더 폭풍 연습 등 유틸이와 에이미의 웃음과 공감 가능한 흔한남매의 일상 이야기이다.



흔한남매

안흔한 일기

원저_ 흔한남매 | 저자_ 강효미 |
그림_ 조병주 | 감수_ 샌드박스 네트워크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의 첫 그림 동화책. 동생 에이미가 유틸이 몰래(?) 쓰는 일기를 동화로 구성한 이 책은 유튜브 영상 속 에피소드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그림 동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동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로 찾기 등의 '활동 페이지'와 일기 쓰기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멋진 요소이다.



중국 플랫폼의 행동 방식

저자_ 이승훈

플랫폼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중국 플랫폼에 주목하라! 이 책은 중국의 플랫폼이 어떻게 세계 비즈니스 판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으로 거듭나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선택한 경영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미국 플랫폼과는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지 등을 낱낱이 파헤치며 플랫폼 기업들의 향후 예측까지 담고 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저자_ 대니얼 서스킨드 | 번역_김정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노동 생태계를 재편하는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정보화에 따라 앞으로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 영역이 어느 때보다 깊어, 그리고 서서히 대체될 전망이다. 저자의 10년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과학 기술이 노동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기술적 실업에 정부, 기업,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핀 시리즈 VOL.V

저자_ 김언희, 이영광, 신영배, 서윤후,
임솔아, 안미옥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의 다섯 번째 컬렉션. 한국 시 문학이 가진 비범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여성적 상상력을 동원해 한국 시의 시적 공간을 넓혀온 김언희, 신영배 시인과 미학과 정치를 동시에 사유해온 이영광 시인, 젊고 예민한 감각으로 시 세계를 구축하며 성장해온 서윤후, 임솔아, 안미옥 시인 이들 여섯 시인들로 꾸려졌다. 표지는 김지원 작가의 '비행'을 주제로 한 드로잉 작품들로 채워져 컬렉션 북에 특별함을 더한다.

파도가 지나간 후

저자_ 샹드린 콜레트 | 번역_이세진

프랑스 누아르 소설가 중 가장 뛰어난 작가로 손꼽히는 샹드린 콜레트의 작품으로 출간되자마자 유럽 및 영미권의 유수 언론의 뜨거운 찬사를 받은 수작이다. 거대한 쓰나미로 파도에 포위된 섬에서 살아남은 일가족 11명이 정원 8명의 배를 타고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자연의 무자비함이 자아내는 긴장감과 생존 앞에 내몰린 인간의 이성과 본능이 일으키는 갈등의 딜레마가 숨을 멎게 하는 심리 스릴러이다.

리처드 매시슨

저자_ 리처드 매시슨 | 번역_최필원

현대 호러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 리처드 매시슨의 단편집. 독특한 소재와 탁월한 스토리텔링, 경이감을 주는 클라이맥스로 20세기 호러 단편의 표준을 결정지은 매시슨의 단편 33 편을 만날 수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데뷔작으로도 잘 알려진 「결투」는 고속도로에서 폭력적 성향의 트럭 운전자로부터 공격받는 소시민이, 「버튼, 버튼」에서는 타인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를 두고 거액의 돈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평범한 주부가 등장해 일상의 공포를 확장시킨다.

인형

저자_ 대프니 듀 모리에 | 번역_변용란

영화와 뮤지컬로 꾸준히 재탄생하고 있는 「레베카」의 저자 듀 모리에의 초기 걸작 단편을 모아 낸 선집이다. 머나먼 외딴섬에 살던 주민들이 욕망에 눈뜨는 이야기인 「동풍」을 비롯해 「인형」, 「집고양이」 등 다양한 인물의 시점에서 승화되어 작가 개인의 불안과 고통,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섬세한 유머로 펼쳐간다. 13편의 작품이 집필된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어 젊은 작가의 상상력과 훗날 대표작들의 토대가 되는 발상을 엿볼 수 있다.

와이즈베리

현대 문학



미 래 엔

01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래엔 본사 전 직원의 재택근무가 시행되었다. 미래엔의 재택근무 도입은 창립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교육업계에서도 최초 사례로 꼽히는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2월 24일 첫 시행 이후 4월 17일까지 시행되었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 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해 기존 3구간으로 운영하는 근무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5구간으로 변경하여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 교육부 MOU 온라인 웨비나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 집합연수 및 공식 행사가 취소되면서 학교 공간혁신 MOU콘텐츠(인디프로젝트)가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해 진행되었다. 3월 12일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공간혁신 담당자 및 전국 57개 공간혁신사업 신청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 미래엔의 다양한 사회 공헌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엔의 공간혁신사업 관련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놀공과 협력해 제작한 월페커즈, 건축 놀이 사무소 키트 지원을 비롯하여 미래교육상, 도서 기증, 혁신수업N,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이 있다.

미 래 엔 서 해 에 너 지

01

+ 무사고·무재해 안전기원 결의 산행 실시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난 4일 경자년 한 해의 무사고·무재해를 결의하는 안전기원 산행에 나섰다. 이번 안전기원 산행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무사고 무재해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가스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고 배관 공사와 안전 관리 부분의 선제적 관리 활동을 강화해 무재해 사업장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가스사고 예방 의지를 결의코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직원들 간의 소통으로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배관 점검 강화 및 보일러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 래 엔 인 천 애 너 지

01

+ 뉴시스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미래엔인천에너지가 ‘2020 뉴시스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5일 뉴시스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이 후원한 ‘2020 뉴시스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에는 15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었다.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채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부문별로 평가 후 시상하고 있다.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채용 규모 및 실적, 파급효과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올해 신설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상식은 부득이하게 열리지 못했다.

미래엔 뉴스 케어

01

+ 유아·초등 전문 수학학원 아담리즈수학 김포센터 오픈



아담리즈수학이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김포센터를 오픈했다. ‘아담리즈수학’은 생활 속 수학을 전파한 독일의 수학자 아담리즈(Adam Ries)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2001년 런칭한 유아수학 전문 브랜드로, 교구와 실물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는 수학과 창의적인 도형 사고력, 새로운 수학 교육 방법을 제시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02

+ 위버지니어스 인성교육 FT(Future Talent) 캠페인 시행

위버지니어스가 ‘창의융합 미래인재’의 메인모토를 반영해 ‘미래인재’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바른 인성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인재로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배려, 존중, 협력, 나눔 등 생활 속의 밀접한 주제를 3개 월마다 선정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위버지니어스는 캠페인 기간 동안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으로 원아들을 지도할 예정이며, 선물도 증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03

+ 딸기가좋아 ‘딸기와 함께 하는 건강한 생활 캠페인’ 진행



딸기가좋아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센터에서 ‘딸기와 함께 하는 건강한 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입장 시 모든 고객의 열 체크 & 코로나19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하루 2회 소독, 테이블 건너앉기를 실천하는 등 딸기가좋아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어린이와 어른, 직원 모두를 위해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기회로 보

다 청결한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은 물론, 놀이시설 점검과 보수 등 안전점검도 실시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04

+ 바우라움, 노령견·치매견 전문 케어를 위한 스페셜케어 센터 오픈

프리미엄 펫케어 테마공간 바우라움에서 집중케어가 필요한 노령견·치매견을 위한 스페셜 케어 센터를 오픈했다. 7~15세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은 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며, 1:1 맞춤 케어 기간 동안 수의사 및 테크니션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재활, 영양, 통증 완화, 문제 행동 교정으로 운영된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내역을 자참하여 담당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오픈 기념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지 난 호 를 읽 고

정아람(경기도 시흥시)

작금의 콘텐츠 트렌드를 디즈니 케이스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앤디 버드 디즈니 인터내셔널 회장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미디어 제작을 넘어 콘텐츠 기업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말처럼, 사보를 통해 만난 미래엔도 교과서 제작이라는 과거의 틀을 벗어난 콘텐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한남매」도 미래엔에서 펴낸 책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사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주셔서 박수를 보냅니다.



장삼동(부산광역시 북구)

‘나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하모니로!’를 읽으니 두 번째로 개최된 목정 어린이 합창대회의 개성 있는 퍼포먼스와 참신한 주제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자유곡에서는 지정곡과 달리 곡 해석의 재미와 참신한 행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목정 어린이 합창대회에서 협동심과 장래의 가치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며 진취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황선득(교육기획팀)

산뜻하게 바뀐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읽을거리가 풍성해진 이 느낌은 뭘까요? 이번 호에는 ‘툴루즈 로트렉’이 소개되어 있어 이 기사를 읽다 보니 사보 전체를 꿈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엔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도, 수상한 책방의 동아서점도 모두 친근하고 화목하게 다가왔습니다.



최영지(서울시 성북구)

‘속초를 만나는 특별한 방법’을 읽고 3대째 명맥을 유지하는 속초의 동아서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서점은 인테리어를 리뉴얼하고, 서점 주인이 손수 책을 골라주는 방법으로 승부수를 던져 타 시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점을 어떻게 경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자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래엔의 ‘2020 버킷리스트’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자기만의 지속적인 계발을 실천하는 미래엔인들의 모습에 놓달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도 올해의 목표와 다짐을 새롭게 해 볼 수 있었답니다.



이정옥(경상남도 통영시)

북큐레이션 「가짜칭찬」 관련 소개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정 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림이 귀엽고 독특해 읽어보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칭찬받으려 애쓰던 제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책을 읽고 미수가 받은 칭찬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쁨 두 배,
슬픔 반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등과학팀	정지현 대리	20.02.17
세종공장	백성선 상무	20.02.17
초등과학팀	강은정 대리	20.02.24
정보시스템팀	이원섭 과장	20.03.02
출판기획팀	김마이 과장	20.03.09
미래전략실	김종수 차장	20.03.16
초등사회팀	이일영 과장	20.03.16
출판디자인팀	곽현주 사원	20.03.16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세요

P&D사업팀	신희재 자녀 출산	20.02.08
--------	-----------	----------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아동콘텐츠개발팀	박지혜 본인 결혼	20.02.13
----------	-----------	----------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동콘텐츠개발팀	김지예 모친 회갑	20.02.13
재무팀	장성환 장인 칠순	20.03.06
초등수학팀	윤선정 시모 회갑	20.03.07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과	김승표 모친상	20.01.25
출판디자인팀	최진아 외조모상	20.01.30
출판디자인팀	최진아 시고모상	20.02.03
국어팀	한 솔 친족상	20.02.12
미래전략실	강유신 조부상	20.02.16
경영기획팀	신현철 부친상	20.02.21
중고등디자인팀	오영숙 시부상	20.02.22
교수학습기획팀	지영주 시조부상	20.03.10

사보독자참여



응모방법 모바일 QR코드

사보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좋은 사보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구독 신청 및 소정의 사은품 배송을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A detailed landscape illustration. In the foreground, there's a rocky shore on the left and a small, grassy island with a lighthouse on the right. A river flows from the background towards the center. In the middle ground, a small boat with two people is on the water. The background shows more hills and mountains under a light blue sky.

Mirae N